

항공학교 교장 소장 유성걸.



사진은 소련에 귀환후 다뉴켄스시
레닌구역 내무서 정치부서장으로 재일시
- 1978년에 찍은 것이다.

최고사령부 군사위원회.

동족상잔이 시작될지 벌써 반 2년이 지나고 보니 그렇게 살았
직하고 정치종교 평양도 재려리가 되고 말았다. 곳곳에 부분적
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당밀호를 막아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대는 1952년 8 말이었다. 바로 북한에는 장이라 출이었다. 약
십여 일 동안이나 별로 개인날이 없이 해려 빛던비는 부분적 강변
에서 대동강을 넘게 하였다. 그 때 따라 서 평양에서 흐르는
보통강은 완전히 자기 강변을 넘어 국변의 농민집들과 나쳐

2.
방들을 완전히 불속에 잠구었다. 그렇게 큰지 못치던 불씨가 이 불에 개이기 시작하니 평양 주민들은 그 불에 젖고 불에 젖은 어부자리들을 밖에서 꺼내어 말리려고 하였다. 백성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운 살림에서 지출대를 지냈다. 때문에 화통에 있는 백성들은 자기끼리 말하기를 새 이것 참 특히 어승만 박사야 어기던가, 김일성이 어기던가 특히 끝장을 해야지, 게특 이렇게야 살수없나? 가 하였다.

김일성은 자기가 시작한 전쟁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에 빠졌음을 은폐하고, 그 고생이 득맞이 지르 간부들이 시기에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아 소련의 것처럼 그려내려고 전력을 다하였다.

1952년 8월 25일경에 평양 대성산 뒤편 총관로 북방 공호 길에, 큰 바닷물 밑에서 군사위원회 회를 소집하여 수많은 군사 정치 간부들이 모여 들고 있던 환경에서, 최고 사령관 김일성은 자기 앞은 ^결 큰 책상 밑에 전화로 놓고 각 지방들을 불어 수색을 위한 피습에 대한 재료를 수집하면서 눈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것은 전민민의 "어버이가" 어떻게 민민을 사랑하고 애타는가, 어떻게 민민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여기는가 하는 것을 좋은 여러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번 군사위원회는 항공학교 집중검열 결과를 토의하기 때문에, 항공 연합부대, 부대, 직속 구별대 지휘관들과 정치책임자들은 거이나 전부다 참가하였는데, 다른 병종들에서는 주로 군단급 지휘관 정치책임자들과 그에 배속된 직속 연합부대 간부들도 참석하였다. 그와 함께 항공사령부 간부들은 부장급 이상, 총정치국 간부들과 농참모부 간부들도 그러한 범위에서 참석하였다.

군사위원회에 의정문제는 단 하나, "항공학교 사업정에 대하여"였다.

이제 항공학교를 간단히 보기로 하자,

항공학교.

조선인민군 조직 초기에는 즉 1947년도까지는 항공부대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가 소련군이 북한에서 나가면서 조선인민군대에 연습기체인 보보-2, 와 야코프-18 을 4-5 대 가량씩 체육연습용으로 양도하여 주었다. 당시 비행사라고는 단 2명밖에 북한에 없었던바 그것은 일본군대 중위 리활, 역시 일본군대 비행사 소위 강대룡이었다. 차후 1948년에 중국인민해방군에서 왕연이란 비행사가 북한에 나오게 되었었던바 그는 1948년에 소련 초갈로브 항공학교를 팔로군의 파견으로 졸업하고 중국인민해방군에 복귀하였다. 이상에 지적한 한개 교도 대대 전력량은 오래동안 남포군 대항리에 당시 존재하여 있던 김책 정치군관학교 소속으로 있었다. 차후 1948년 12월에 소련군이 북한에서 완전히 나가자 1949년 봄에 평양 동쪽에 위치하여 있던 비행장에 전체 통합처 한개의 교도사단의 전력으로 소련인 교수들이 지도하에서 훈련을 하였다.

6.25 상전이 시작될 때까지도 어떠한 뚜렷한 전투부대라고는 없고 이 교도사단내에 있는 몇개의 전투기 야코프-18이-9 대가 있었었던바 이것을 적기를 대상으로 하여 공중전용으로 쓸 것이 아니라 주로 저공성능있는 배비라산포용으로 리용하였으나, 1950년 6월 28일에 동평양 비행장의 집중적 포격을 받은 다음 (유엔항공기들에게) 그들이 존재하는 종결되고 야코프-18 형을 야간포격기로 리용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그것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배비라산포용으로 리용하였다. 이러한 조건에 처하여 있던 교도사단을 늘릴 필요가 가리고 중국정부가 허가하여 연결비행장에 어두워졌으며 이에 조선인민군 항공학교라는 칭호를 부여하였다. 항공학교는 조직된 이후 2년동안 소련 비행사 교수들이 직접 방조하여 많은 비행사들을 준비하여 2개의 사단을 준비시켜 버

세웠으며, 그것은 제2 전후기 사단과 제3 폭격기 사단들이
 그것이었으며, 제1 방사기 사단 준비과정에서 소련 3중영웅
 깃대주부 사단이 주도적 역할을 메고 준비시켰지만 그 연합
 부대의 지도적간부들은 다 항공학교 출신으로 재교육 받은 사
 람들이었다. 레를 들어 사단장 강대용, 기술부사단장 최한국,
 연대장들 김희경, 태극성 외에도 각 기술구분대 지휘관들이
 다 항공학교 출신이었다.

피항에서 말한바와같이 평양에서 훈련하던 한개의 교도사
 단은 항공학교로 개조하면서 경치군관학교 학부장으로 제
 시던 유성길 선생을 항공학교 교장으로 추대하였다. 그것은
 그 당시 항공학교 교관들은 백프로가 소련 비행사로 구성되고
 물들이었으며, 부분적 조선인 비행사 2-3 명이 있었으나 이들
 은 전부다 항공사령부 지도간부 지위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당시 유성길 선생은 소련 고문들앞에서도 아주 뛰어난 위신
 있는 인물이었으며, 사고력이 비상하고 아주 총명하였으며 군사
 규율이 엄격한 분이었다. 항공부대란 규율이 엄격하지 못하면
 특별 기술부대로서 비행사관 대원들이 모든 일들이 파탄되는 법이다.
 피제 다시 군사위원회 진행 과정을 보기로 하자.

특별한 준비로 소집된 군사위원회에서는 소련 출신 박태섭
 대좌가 보고하였던바, 그것은 그 당시 총정치국 조직부장인
 었으며, 총정치국장에는 역시 소련 출신 김기백 중장이 제쳤
 김일성은 피물레 취급에 있어서도 자기전술을 썼던바, '민족
 보호성 총참모부 직속으로 군사교육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학교 집중검열에 총정치국을 동원하고, 그것일 총화 보고를
 소련 간부에게 위임한것은 스 너의들의 손으로 너의들을 가하기
 는 것이다. 당시 총참모부 직속 군사교육국장에는 발라지산 출신
 허봉학 소장이 제쳤다. 김일성은 군사교육국을 무용지 귀들로 돌려

내놓고 총정치국을 대리는 도구로 리용한것을 군사위원회⁵에
찬성한 여러간부들은 감속하면서 문당 그렇게 해야 되는것으로
연정하였다.

박해섭 대사는 자기보고에서- 조국의 권초초에서는 자기 조국
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사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농민들은 한 말의 곡물
이라도 더 생산하여 전선에 보내며, 후방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헐
벗고 굶주림을 헤아리지 않고 밤을 나그로 대신하여 일하고 있는
이 긴장한 시기에 유호형제처럼 품목양에 인식을 가지는 항공학교
간부들은 그의 교장 유성걸 교장을 비롯하여 자기 조국의 비참한
형편을 양각하고, 남의 땅에서 라치로 영위어나 살것처럼 너무
나 안일-호화한 생활을 하고있다. 레히만 교장 유성걸 소장은
조국에서 하고 들어간 군대 전용 지프승용차로 "항의복조"의 구조를
들고 조선에 나오는 품목지원군들의 이국제 하야하고 교환하여
하고 다니며, 교장 유성걸 소장의 사복실은 복도로 붙여 시작
하여 다름 장판과 벽, 어디나 볼것 없이 양한자를 펴고, 절고,
깔고 붙고 다니는 형편이다.

항공 기관 학교 집중검열 보고서라 한다면 그의 중심문제는
반듯이 군사교육체계, 교육강령, 군사규율, 전투훈련 등을 잘
쳐서 실지로 실행하는 기관들이 양성되고 있는가, 없는가? 없
다면 무엇때문에 없으니 어떤-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
야 되겠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항 기본문제를 떠나 후방
보급문제를 내걸고 생집합을 하는 모양이었다.

본래 이골에는 알레시대에 항공교도 연대가 있었다. 때문에
에 비행장 설비를 붙여 시작하여 기본 군사 건물과, 연대본부,
식당, 구락부와 휴식실, 지어는 장교들이 사택까지 많은 돈을
넣고 새로 설계대로 건설된 한개의 군사 집중부락이었다.
이것은 알레가 여기를 자기의 영구한 식민지를 연정하고
돈을 아낌없이 정은 모양이었다.

일제가 패망한후 이 끝에는 중국인인 해방군의 1개
 년병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조선 권선이 아비외자
 조국석의 지시에 의하여 대대는 북조항의 지원군으로
 조선으로 나가고, 그곳에 있던 모든 물건은 전부다 항공
 학교에 떼어하게 되었다. 대대 물에 유성결 소장은 다만
 그 물건을 중국인인 해방군들에게서 떼어내어 상복의 지시대
 접수하였을 뿐이지 어느 국가의 돈으로 산것은 하나도 없었다
 사무실로 옮기고는 연대장 사무실어 그 차림새가 그대로
 중국 대대장 사무실어 되었다가 언젠은 업시로 항공학
 교 교장의 사무실어 되었을 뿐이지 아무런 변동도 없었다.

다만 변동이라고 볼수없다면, 그 사무실에 중국 대대장대신
 세 유성결 소장이 앉아 있었을 뿐이지 다른 변동은 없었다.

항공학교가 중국에 이동한 이후, 전쟁이 시작 되자 2년 만에 처음
 진행한 집중검열 총화 보고라면 그 학교 라쿠바닥에 띄어 놓은
 양한재에 대하여 목숨을 높여 집합할것이 아니라 그 항공학교
 가 어렵은 시기에, 자위족간부들의 방조는 전혀 없는 조건하에서
 3개의 항공전투사단, 즉 제 2 전투기 사단 제 3 습격기 검폭격
 기 사단을 준비하여 전투에 연습시켰으며 그 외에도 한개의 기술
 사단에 누대한 특별기술 구분대들을 준비하여 북조선 3.8연선
 으로 불어 시작하여 항공 공중전투를 지휘할수 없는 모든 고지
 들에는 최신 총포기재들로 설치된 보조지휘소들을 설치 배치
 하였다. 이 보조지휘소들은 항상 야권을 엄호하여 큰 소련 항공
 지휘부와 중국 지원군 항공지휘부에도 필요하였던것이다. 그
 외에도 제 1 항공방사기 사단은, 소련의 조국전쟁시기에 가장
 높은 명성을 떨친 깐제루브, 소련의 3중명용이 사단장으로
 계시면서 매일전투에 연습되어 있는 조건하에서 낮이면 전투
 밤이면 강타, 몇 비행기 위에서 실무연습으로 8개월만에 전투에

인임으로써, 그 때까지 북한 항공에서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마음대로 날려들어 주위 노릇을 하고 있던 연합군 항공기들에 막대한 타격을 주어 많은 항공영웅들이 배출된 실로 전설적 이그-전투기 사단도 항공학교의 산이라고 응당 불러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박태섭 대좌의 상부지시대로 꾸러낸 보고에는 이상의 업적에 대하여서는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 필잔은 소위 고급간부들이 뭉어 최고사령부 군사위원회에서 필잔은 유성으로 순조로운 말씨가 흘러나올 대신에 자기 총명성리, 근면성으로 언하여 치신 있게 기본업무를 성리적으로 수행하던 유성필잔군의 바로 1연상에 오물을 파치는 격으로 그의 업적을 모욕하는 어조로 띄어놓은 보고는 그의 길지로 못이었다. 또 길게 늘어 놓을 지라도 없었다. 이런 보고를 기대도 하지 않던 관공은 입에 물을 다룬 것처럼 누가 질문도 하지 않고, 누가 보충조로도 하려하지 않았다. 조용히 앉아 있는 군관들은 서로 순치만 살펴보는 순간이었다. 바로 이때에 전 연립의 "어버이" 김일성은 눈에 눈물을 어리끼고 다음과 같이 결론하였다:

- 조국 전쟁의 가혹한 시기에 조선 전쟁의 조속한 승리를 위하여, 전선에 가장 요구되는 항공부대의 업호를 받기 위하여 우리들은 항공학교를 우선형제국인 중국에 보내었다. 그러나 중국에 들어간 항공학교 간부들은 그의 좌장 유성필잔군을 위축하여 밤을 낮으로 삼고 짐손성을 벌이면서 일할 대신에 정한대로 안 일한 기분에 빠져가지고 똑같이 거기에서 영구히 살 것 처럼 자포치는 하야로 교환하고, 양한 자를 피눈은 길로만 걸어 다녀서야 될 일인가? 왜 군관들에게 100%로 중국 돈으로 봉급을 지불하는 것인가? 다시는 조국으로 나오지 않을 예정인가?

- 나는 오늘 군사위원회에서 당신을 철직하여 전선부대로 파견할 것을 간부에게 명령하오 - 하였다. 군사위원회는 여기에서 끝났다.

간단 요약:

유선생의 원명은 유가이 니콜라이 안드레예비치였다. 8.

그는 1920년 3월 13일에 원동변방 연해주 니콜스크-우스리스크 (소왕령) 시 로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1934년에 유선생의 아버지는 전근되어 스라프까시 리산 전문 학교를 가게 되었다 어머니도 역시 그 학교에서 다무원으로



사진은 소련에 귀환 후 당 학교에서 공부할 때였다.

공부하시었다. 유선생은 스라프까시에서, 스라프까시 초급에서 공부하였다. 1937년에 원동 전체 한인들이 강제 이주에 따라 하슈켄트주 치나스시에 도착하였다. 선생은 강제 이주 후 싸마르칸드시 사범 전문 학교에 입학하여 2년간 수료한 다음 동시 사범 대학에 입학하여 1942년에 그 대학을 졸업하였다.

1942년 봄에 1945년, 소련군에 초보될 때까지 하슈켄트주 안기울구역 제 11호 고급에서 어문학 교원 겸 교무주임으로 일하였다. 1945년 2월 2일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였다. 1945년 10월에 군사동원부의 명령으로 소련군에 초병

되었다. 소련군에 초빙된 유성길 선생은 원종현강 연세죽를
걸쳐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 제 25 집단군에 도착하게 되었다.

소련군 제 25 집단군 관할하에 도착한 유성길은 집단군 총참
모부 명령 1945년 11월 9일부 N 139 호에 근거하여 군대
동역관으로 임명 받아 인천사령부에서 1946년 4월 말까지
토지개혁 및 산업기업소 국유화 행정에서 일하였다.

1946년 5월 초부터 1948년 7월까지 경희군관학교로
교원 겸 부교장으로

1948년 8월 초부터 - 1950년 9월까지 제 11 항공 독립교도사
단 정치부장.

1950년 10월 초부터 - 1952년 8월까지 조선인민군 항공학
교 교장의 직책에서 사임하시였다. 1952년 8월 25일

총참모부 군사위원회 최고사령관의 결론에 따라 유성길 소장은
항공학교 교장의 직위에서 철거되며 서부전선 제 2군단
제 4 서울 근위사단 군사부단장으로 감직되어 내려갔다.

1953년 8월 초부터 1955년 10월까지 평양외국어 대학
에서 교무주임 겸 부교장으로 일하였으리다.

1955년 11월 초부터 1960년 3월까지 민족보위성 육군대학
강좌장으로 사임하다가 동년 4월 말에 소련에 귀국하였다.

유성길은 우선 소련 무력성 간부국에 도착하여 소련군에서 제 1
대 대령서 무력성 연금생으로 대좌의 군사칭호를 받게 되었으며,
무력성의 주선에 의하여 소련공산당의 지시로 한인들이 살
기 좋은 다뉴겐으로 파견되었으리다, 때문에 도착하여 모든
생활 조건물제들을 해결한 다음 자신은 무르헤코안한 공산당
중앙당학교에서 4년동안 공부하였다. 1964년에 당학교를
탈이고 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부의 파견에 의하여 내무성
제정으로 다뉴겐에서 내무부 레닌구역 내무서 부서장으로



사진은 유선생의 사모님 김아리아.

임병되어 사임하시었던(아) 책임같은 사업에서 많은 성
 과들을 견디었으며 그 동안 아들 응형제 딸 형제를 전부 다
 대학을 졸업시켰었다.
 대학을 나온 아들 응형제는 : 장남은 내무성 건설관리국에서 차
 남은 내무성 상업 관리국에서, 삼남은 합작 생방기업소 관리
 위원장으로, 넷 딸은 - 시 보건부 치과병원 부원장으로, 화력은
 말마따라 출가하여 잘 살고 있으며, 종종 가족과 함께 방문들을
 찾아 오곤 한다. 사모님 아리아는 1976년부터 연금생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유선생 선생은 1988년까지 작장에
 서근무를 하시다가 완전한 연금생활에 들어가시면서 열성
 적으로 사회사업, 즉 국공전선 상임위원으로 계셨다. 선
 생의 자식 5명중 아들 응형제와 넷 딸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 역시 국공전선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유선생 선생은 1992년부터 당도병으로 안하여
 보건성 산하 여러 병원들에서 많은 치료를 받았으나 큰 효과
 를 보이지 못하고 1995년 5월 20일에 서거하였다.

다슈켄트에서, 1995. 10. 25. 강학봉.